

교육취약학생 복지사업 늘린다

도교육청, 작년대비 19억원 증액 591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취약학생이 학교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 사업을 더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교육비·교육복지우선지원 등 3대 교육복지 사업에 총 591억2,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572억4,400만원)에 비해 18억7,900만원 늘어난 규

모다.

우선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자녀와 의사자 자녀 등에 대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을 지원한다. 지난해 2만2,823명에 79억2천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만3,101명에게 총 106억8,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저소득층, 난민, 북한이탈

다자녀, 기타 학교장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교과서, 현장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2만2,818명에게 372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학생수 감소로 지원대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지원범위(중위소득)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10만6,621명에게 361억9,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원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

북한이탈등 교육취약학생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305교 2만545명에게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121억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5교를 늘려 310교에 총 122억3,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단체협약 체결식' 후 박우정 군수와 안남규 노조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놀이중심 유아교육에 5억2000만원 투입

놀이체험·자연체험·책 놀이터 등 자율선택과제로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놀이중심 유아교육을 위해 놀이체험, 자연체험, 책 놀이터 등 자율선택과제로 지정해 총 5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자율선택과제로 선정한 프로그램은 모두 3개다. 먼저 놀이와 체험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실내의 놀이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연과 연계한 바깥놀이 프로그램도 있다. 유치원 주변의 숲 등 자연환경에서 자연탐색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도란 도란 책 놀이터는 유아 뮤지컬 공연, 인형극, 동화 구연 프로그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총 5억2,000만원을 지원, 위 프로그램 중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 신청하면 유치원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3가지 선택과제 외에도 별도 계획을 마련해 신청할 수도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주시, 5~20일 4720명

전주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9개월) 참여자 4,268명과 노노케어(9개월) 일자리 사업 참여자 452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은 오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주 3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며 매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14개 민간 수행기관에서도 동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교육 및 활동교육을 통해 노인문제 예방기능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대 이호인 총장, 전북대 총장협 회장 선출

내달 1일부터 회장직 수행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사진)이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일 전주대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이호인 전주대 총장을 23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학간 상호협력을 통해 각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고, 도내



4년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대학간 교류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대학정책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며 전북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이호인 총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등 현장점검 활동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애로사항 청취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전주시 가정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관내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현장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아동복지와 아동교육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 완산구 소재 산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주요기능 및 사업은

영현황, 전주시 복지정책이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들었다.

양영환 위원장은 “복지정책의 다각화로 각종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아 복지시각시대 발굴·해소,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며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민 가까이에서 실현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